

2017학년도 제 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7년 1월 12일(목) 16:00~17:00
- 회의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정현식 (위원장)
 윤권석 (기획예산팀장)
 이도행 (학교법인 법무감사팀 공인회계사)
 김천일 (학생회 비대위 위원장)
 정진성 (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김종혁 (대학원 총학생회장)
 이원석 (주간MBA 원우회장)
 김창배 (외부전문가위원)
- 불참위원 : 양미경 (학생문화처장)
- 배 석 : 김남진(간사)

1. 등록금 책정안 설명

- 다음과 같이 등록금 책정(안)을 설명함

구분	입학금	수업료	비고
학부	동결	0.9%	- 과거 동결 기초 지속에 따른 인상요인 발생 - 국가장학금2유형, 각종 국고지원사업 감안하여 동결안도 고려
일반대학원		동결	- 과거 인상 기초를 유지에 따른 학생부담 완화 - 주요 대학 등록금 수준 고려
전문대학원		동결	- 주요대학 등록금 수준 고려 - 신학대학원 일부학과 수업연한 단축 조정
		1.4%	
		동결	- 주요 대학 등록금 수준 고려 - 충원을 고려

2. 위원 발언 및 질의 응답

김천일(학생회 비대위 위원장)

등록금 인상할 경우 사업 참여에 배제되는 국고사업들이 많음. 국가장학금 2유형 탈락, 코어사업 등이 중단될 여지가 있음. 교육부 민원 결과,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2유형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담당자의 답변을 보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10억 이상의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아왔고, 특성화사업 중간평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고지원 사업에서의 불이익을 생각하면 등록금 0.9%의 인상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됨. 그 외에도 등록금 완화 지수가 대부분 국고사업의 지표로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음. 무조건 동결 이하로 가야한다는 입장임.

윤권석(기획예산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등록금이 정체된 상황에서 적어도 우리대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함.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학생들이 받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 서강대학교가 위기에 처한 것을 등록금을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임.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재단 문제 등이 끝없이 불거져 나오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과연 서강대학교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듦. 학생들이 아무리 등록금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재단 재정보조가 부족하고, 국고지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학교 재정구조가 좋아질 기미는 없다고 봄. 그렇다면 결국 등록금의존도가 높은 상태를 지속 하자는 것이 아닌지.

윤권석(기획예산팀장)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보다도 미래에 더 교육 품질이 낮아질 것이 우려됨.

김천일(학생회 비대위 위원장)

그 부분을 등록금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등록금으로 해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함.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법인의 재정부담 능력이 낮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

윤권석(기획예산팀장)

학생한테 전부 전가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님. 학교에서 보다 긴축 운영할 수도 있음. 다만 그만큼 교육에 투입될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임. 예를 들어 교수님들 연구실을 청소하지 말자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생존을 위한 긴축 방안이 거론될 정도임.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경쟁대학을 이기고, 학교에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왜 등록금을 통하려는지 모르겠음. 등록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애초에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상태인데, 인상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함.

윤권석(기획예산팀장)

우리 대학의 구조적 한계도 있음. 서강대학교의 주 사업은 교육업임. 수입을 다각화 하라고 해서 교육을 하지 않고 영리활동을 할 수는 없음. 등록금으로 다 해결할 수도 없지만, 등록금 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음.

김장배(외부위원)

등록금 의존도가 50%이상임. 실제로는 등록금 의존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됨.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내는 수준임. 학교 측에서 등록금인상 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면 학생들이 불편할 수 밖에 없음. 우리 대학은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분명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함. 이 현실을 재단 측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함. 재단에서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학생들한테 의존 하는건 분명 문제가 있음. 예산 규모로 모아 지금의 동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지도 모름. 그러나 재단측에서 동문과 합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한다는 점을 인식해야함. 개선 방법을 찾아가는 입장에서 재단 측에서도 변화가 있어야함. 내 자녀가 서강대에 입학한다고 할 때 말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됨. 재단의 문제를 생각하고 동문들도 협조적으로 나가야 학교가 좋아지는 것임. 단합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음.

윤권석(기획예산팀장)

당연히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구조적 문제가 있음. 재단은 재단대로 노력할 것이고, 새로운 총장님이 노력하시리라 믿지만, 이 자리에서 현실적 문제를 조금은 공감을 할 수 있었으면 함.

이도행(법인추천위원)

실무자로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생각하고 고려할 문제가 많으며, 동문회와의 관계가 악화된 것도 안타까운 부분임. 다만 지금 재단의 현재 상황으로는 급격한 재정개선을 통한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와는 별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합심할 수 있는 정책을 정할 필요가 있음. 교육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명확히 공공재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그러나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의해 공공재로 간주되고 등록금 등에 있어 통제를 받고 있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합리함이 있다고 생각함. 실질적으로 등록금 수입은 최소한의 자율에 의해 수익자 부담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지출을 감시, 통제 받는 구조가 보다 합리적일 것임. 수입 부분에 있어 자율적 의사결정/경영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장학금, 인건비 등의 지출을 현 수준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함. 학내 여러 가지 이슈로 어긋나고 있으나, 재단, 학교, 동문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이 되어, 학교가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정현식(위원장)

일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도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 좋겠음. 당연히 학생위원의 발언처럼 국고 지원 사업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려서 손해를 보는 결정은 해서는 안 됨. 다만 앞서 말한 공감대에 대해 확인을 하는 의미가 있었으면 함.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학생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에 공감할 수 없음. 물론 학교가 영리기업이 아닌 부분이 있지만, 등록금 의존율을 보면 학생들이 등록금을 많이 내고 있고, 등록금 의존율이 높으면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현재 학교는 그렇지 않음.

정현식(위원장)

서강대학교 학생으로서 대학평의원회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의 비중을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함.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정부에서 제제하기 전까지는 등록금을 계속 올려왔음.

윤권석(기획예산팀장)

과거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법제화 되기 전에도, 서강대학교는 계속 등록금 협의회를 운영해왔음.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예전 기사들 보면 학생회에서 등록금 심의회를 만들라는 요구를 했는데, 학교에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음.

정현식(위원장)

몇 년전에 등록금 심의위원회 참석을 보이콧 한 적은 있었음.

김종혁(대학원 총학생회장)

대학원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동결 안에 대해 반대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지원이라든가 장학금, 연구비 등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지 의문이 생김.

정현식(위원장)

장학금으로 배정하는 비율은 작년과 같은 기준으로 함. 지난번 회의에서 논문심사료에 대한 것을 검토해봤는데, 고려해야 할 이슈들이 많음. 금년도에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점차 논의해보고자 함. 일반대학원은 작년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임. 장학금 총액에 대한 비율은 일정한데 내부에서 배분되는 비율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원석(주간 MBA 원우회장)

경영대학원은 가장 등록금 부담이 큰데, 학생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혜택도 줄고 있음. 이대로라면 경영대학원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위기임. 동결이 문제가 아니라 등록금 인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주간MBA가 계속 진행이 되기엔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함. 예산 배정액도 점점 줄어들고 있음.

정현식(위원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학생 수가 줄어드는 비중이 더 큰 상황임. 등록금을 줄였을 때 강의가 축소되거나, 과목수가 줄어드는 등 서비스 품질이 하락될 우려가 있음. 프라이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경영전문대학원이 가진 인프라 같은 것이 있어, 2017학년도에는 일반적으로 등록금대비 배정하는 예산보다 추가 배정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이원석(주간 MBA 원우회장)

동결을 해도 더 나빠질 것으로 생각됨.

정현식(위원장)

현재로서 동결이 가장 소극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함. 프라이싱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가고 있음. 새로이 오실 학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실 것이고,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전달드린 바 있음. 과거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오는 학생 비중이 높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남아있다고 생각함. 학장님과의 정기적인 자리가 마련 돼 있는지.

이원석(주간 MBA 원우회장)

없음. 원우회 담당교수님과의 자리만 있음.

정현식(위원장)

학장님과 원우회가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봄.

이원석(주간 MBA 원우회장)

다른 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낮지 않음.

정현식(위원장)

대학마다 학기제의 차이가 있어 학위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등록금으로 비교해야함. 주간 과정 학기제 단축은 학생들의 요구가 컸음. 제도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김중혁(대학원 총학생회장)

대학이 나아갈 길에 대해 고민해야 할 부분을 얘기하고자 함. 학생들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재단과 학교당국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함. 학교의 규모가 작았을 때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학생들과 신부님 교수님들과 관계가 좋은 것이 프라이드가 될 수 있었음. 지금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음. 다른 학교의 평의원회는 학생들 의견이 직접적으로 대변되는 부분이 있음. 최근 들어 학교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게을리 했다고 생각함. 이 자리가 정말 학교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려면 학교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야함. 학부도 대학원도 같이 동결 아니면 인하를 얘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학생들과 어려움을 함께 연대하려면 학교가 먼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함. 새롭게 총장 취임해서 학생과의 대화를 하게 되면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까지 함께 면담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공식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정진성(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학생들은 재단 상황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 공감할 수 없음. 재단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

김천일(학생회 비대위 위원장)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등록금의 인상 요인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음. 또한 학교 재정의 어려움을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재단뿐만 아니라 학교 당국도 노력을 해야함.

김창배(외부위원)


학교측과 학생측이 재정적 어려움은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학생위원 입장에서는 그 것을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보임.

3. 결정사항


- 학부 등록금은 동결로 결정함.
- 학부 등록금을 제외한 사항은 학교측 제시안으로 결정함.
- 차기 회의는 1월 25일(화) 10:30으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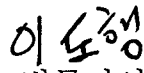
2017. 1. 22

위의 사실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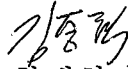
위원장 : 정현식 기획처장 

(교직원 위원)


윤권석 
기획예산팀장


이도행 
학교법인 법무감사팀

(학생위원)

김종혁 
대학원총학생회장

이원석 
주간MBA 원우회장

김천일 
학생회 비대위 위원장

정진성 
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

(외부전문가)

김창배 
파투아 부회장